

안녕하세요~ 수만취멘토 치즈입니다!!

오랜만이예요~~요새 너무너무 바쁘다보니 칼럼을 못 썼어요..
지금도 PPT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오늘 주제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고3이 되면서, 이미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치르셨고, 사설모의고사도 학교에서 많이 풀꺼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SMART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다!

=====

잠깐...일단 이번주제를 말하기전에 잠시 말씀드릴게 있어요..

제가 쓴 두개의 칼럼 (사탐선택가이드, 반수가이드)가 쓰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저도 3월초?까지는 열심히 답변달아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바빠서 답변 못드린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 글을 읽고서 질문하시는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한국사 진짜진짜 하지말라고 썼는데도 한국사하면 힘들까요? 이런 댓글이라던가.

제가 ~~~~~한데 반수해도 될까요?(구체적으로 반수방법을 묻는게 아닌) 라던가...

저런 정보들은 제가 충분히 본문에 써놓을것같거든요 본인의 판단만 남은거죠..

여러분 개인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거 없습니다;; 최대한 모두에게 적용되지않을까 싶은것들 써놓은거예요..

질문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질문 받는거 좋아하는데 그런질문들이 나오면 했던말 또해야되서 너무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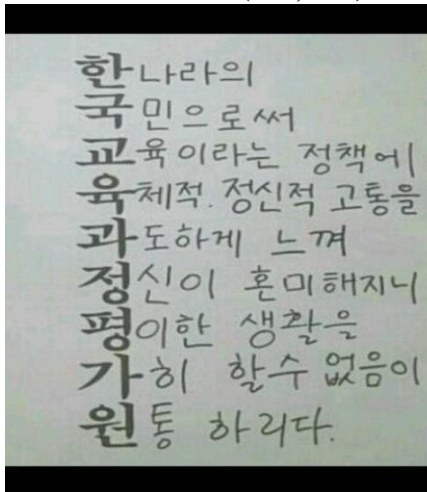
질문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지만 답변해드리는 저는 한명뿐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1. 모의고사 종류

우선 모의고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드릴게요

◎평가원 모의고사 (6월,9월)



정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수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능의 논리와 가장 흡사한 시험이죠.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모두 중요합니다.

혹시 평가원 기출문제를 안풀어보셨다면 EBS 보다도 먼저 풀어보셔야합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 교육청모의고사(3월,4월,7월,10월)



교육청은 무슨사진 넣을지 몰라서.. 고대사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원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가끔 창의적인 문제와 좋은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면을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정답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시험은 평가원 시험과 교육청 시험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3월모의고사 다들 쳐보셨을텐데요..

사실, 교육청모의고사 문제가 좋은 편이긴하지만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때 받은 점수랑 수능날에 받는 점수는 진짜 너무 달라요... n 수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분석해서 자신의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고 약점을 체크해주세요

◎사설모의고사 (대성, 종로, 중앙, 비상 등)

시행일	고3수능		고1,2수능	
	일자	시행사	일자	시행사
3월	14(수)	서울시교육청	14(수)	부산시교육청
	20(화)	종로		
	29(목)	유웨이		
4월	10(화)	경기도교육청	10(화)	비상예두 유웨이 종로
	18(수)	메가스터디		
	20(금)	종로		
5월	17(목)	종로		
	23(수)	비상예두 유웨이	23(수)	비상예두 종로(1학년)
	29(수)	평가원	29(수)	서울시교육청
6월	7(목)	평가원	7(목)	서울시교육청
	20(수)	종로		
	27(수)	종로		
7월	11(수)	인천시교육청	10(화)	고2성취도평가
	16(월)	종로		
	20(금)	메가스터디		
8월	14(화)	종로		
	24(금)	비상예두 유웨이	24(금)	종로 유웨이
	29(수)	평가원	29(수)	인천시교육청
9월	6(목)	평가원	6(목)	인천시교육청
	21(금)	유웨이 종로		
	28(목)	유웨이		
10월	9(화)	서울시교육청		
	19(금)	메가스터디 비상예두 종로		
	25(목)	유웨이	25(목)	유웨이
11월	1(목)	유웨이		
	2(금)	종로		
	8(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4(수)	경기도교육청

각종 입시기관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입니다.

고3 때 꽤나 많이 풀게 될 것인데요..

제목 그대로 버리십시오.

교육청문제는 분석할 가치가 있는데 이걸 진짜 분석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일단 뭐 EBS 도 반영안하구요. 언어나 외국어같은 경우는 정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D 사의 언어는 최악입니다. 월레고사는 그나마 낫던데 이걸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거라..) 있다가 과목별 활용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시간맞춰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문제집형 모의고사



공식적으로 뭐 단체로 시간맞춰서 보고 그런 것없이 그냥 시중에, 또는, 인강 강사들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문제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다만, 인강 강사들이 만든 것들 중 일부는 퀄리티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EBS 도 연계시키고, 창의적인 문제도 꽤 많기 때문이죠..

특히 수리영역에서 돋보이는데,

티치미,마이맥의 한 x 원 선생님이나, 오르비의 포카 x 가 만든 포카칩 모의고사가 좋습니다.

(포카칩님은 인강강사는 아니지만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그 외 인강강사들의 모의고사는 인터넷으로 평판을 검색해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 과목별 모의고사 활용법

◎언어

언어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집(인강강사 포함)에서는 정말 건질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는 평소에 **평가원,수능 기출문제를 무한반복하시면서 지문을 꿰뚫는 하나의 핵심 원리 및 문제 유형별 풀이법, 실제 시험장에서의 대처상황 등을** 생각해주세요.

올해 보시는 6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불만한 기출문제가 늘었다는 느낌..?

그치만 이걸 수능 무렵에 다시 풀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6월,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나서, 지문의 구조도를 그려보면서 지문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할지,

그리고 신유형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분석해주세요.

◎수리

수리같은 경우 역시 사실모의, 문제집에서는 별로 건질게 없어서 안푸는걸 추천하지만, 언어만큼 아예 풀지말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모의, 문제집에서는 수능같이 창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계산을 엄청길게해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하기에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 풀이과정을 단 한 번의 실수없이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실수를 줄이기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푸는 법이 생각나면 번호를 매겨서 그 순서를 적어놓은다음, 그 순서를 적어놓은대로 한줄한줄 적어가면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문제를 읽고, 풀이법을 고민한 다음 생각이 나면

1) 지수,로그함수 그리기 2)함수 이동해보기 3)세모부분 넓이, 원부분넓이 구하기 4)로그식 계산 (그냥 제가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후, 1. ~~~~~

2.~~~~~

3.~~~~~`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풀이과정을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 더 궁금하신분은 질문하세요~

수리도 역시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를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출제원리를 파악하세요..

후에 수리 칼럼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수학문제는 '유형'부분과 유형을 감추는'베일'부분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통해 유형을 어떻게 감춰냈는지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수학같은 경우는 교육청문제의 질이 좋기때문에 교육청문제도 시간나시면 분석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는 6,9 월 모의고사 같은경우 수능보기 3 일전에는 꼭!꼭!다시 천천히 풀어보세요.

6 월,9 월에 출제되었던 개념이 수능에 정말로 나옵니다.

풀이과정같은게 똑같은게 아니라 그 문제의 개념이 나오기때문에, 문제푸시면서 '이 문제는 지수의 확장부분에서 출제도있군. 이 문제는 부채꼴을 묻는 것이군.'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분 개념을 재확인하시고 그 개념의 풀이법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전 실제로 수능날에 6,9 월평가원 다시 푸게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2013 수능 문과생들 정답률이 낮았던 무한등비급수문제, 그거 6 월 9 월에 개념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양치기가 중요해서 아무거나 풀어도 손해라고 할수는 없네요 ㅎㅎ

◎외국어

외국어는 사실 문제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죠..

그치만. 2011 학년도 이후로 빈칸추론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나머지영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이 시점에서는

사설모의, 문제집들은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다만, 빈칸추론을 특별히 어렵게 내는 모의고사 형식이 있다면 그건 푸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설모의,문제집은 그냥 모든 유형에서 지문을 쫓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글의순서,문장삽입 같은 논리성 문제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어렵게 내서 별로 좋지않습니다.

사설모의, 문제집을 푸시게 되시면 그냥 단어공부만 해주세요.. 그치만 빈칸추론에 특화되어있는 문제라면 그건 분석하셔도 좋습니다. 빈칸추론 찾는 원리를요. (빈칸추론 정답찾는 원리는 대성마이맥의 이명 x 선생님이 정말 잘가르쳐주십니다. 강추..)

외국어같은경우는 교육청도 빈칸추론 문제를 잘 못내서.. 그닥 좋진 않지만, 교육청모의고사같은경우 문법문제는 상당히 깔끔하기때문에 문법문제는 분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문법개념에서 나왔는지를요... 문법같은경우 교육청기출까지 풀어보시면 큰 도움됩니다.

수능,평가원기출을 통해서는 특히 빈칸추론 문제의 출제원리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수능 3 일전에 올해 6,9 월평가원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정답찾는 원리는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탐구

과탐은 제가 안쳐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탐같은경우도 사설모의,문제집은 쓰레기입니다.

수능,평가원 문제만의 창의적인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일반사회과목들에서 나오는 표분석문제는 평가원,수능문제만이 의미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저 문제들로 집중분석해주세요.

다만 역사과목군은 특성상 변별력을 위해 지엽적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사설모의고사의 더러운 출제스타일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과목군은 오로지 기출문제만 파셔도 됩니다. 탐구영역은 EBS 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3. 시기별 모의고사 활용법(정리)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사설모의, 문제집은 버리되..

3월 ,4월->교육청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않는다. 수학은 평가원문제와 동일한 취급으로, 출제 유형을 파악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낼지 연구해본다. 언어는 일부 좋은 지문은 평가원문제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외국어는 어려운 빈칸추론 문제, 어법문제는 분석하며 나머지는 안해도 되고 단어공부를 한다. 탐구는 교육청문제의 경우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6월->대망의 평가원 모의고사.. 전과목 모두 철저한 분석을 요한다. 모의고사 전체를 분석하는데 3일이 꼬박걸려도 아깝지 않음!

7월->3,4월과 가음

9월->6월과 같음

10월->7월과 같음. 이쯤에서 이제까지 틀린 문제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11월(수능 1주일전)->올해 6,9월평가원문제를 다시풀어본다. 특히 수학은 나왔던게 또나온다.

이상으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즐리네요..밤에써서..

댓글과 추천(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천과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